

# Thai Team

2013. 11. 01 ~ 2013. 11. 30



# 1. School Program



2013. 11월 Wat Pao Sam Kha School에서...

# 1. School Program

## 1. Homestay

설렘 반 두려움 반을 안고 시작한 Homestay! 어색하기만 했던 한 달 전 첫 만남부터 지금의 시간까지 알콩달콩, 티격태격 함께 했던 우리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 1. School Program



## 1) Ton Yong's Family

### Mae Kan

엄마의 첫인상을 한마디로 정리 하자면 '친절하고 침착한 분'. 물론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인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이상의 반전매력을 갖고 계신다. 음주가무의 달인!! 음, 노래하는 에너지이저라고 말하고 싶다.



### Phuu teung

아빠와는 아직 어색한 사이다. 아빠가 말이 많이 없으신 까닭에 가족 멤버 중 대화를 가장 많이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빠가 마음 먹고 대화를 시작할 때는 그 모습이 랩퍼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태국어를 쏟아내신다.^.^;;

# 1. School Program



## Nong Fai

내 여동생 Fai는 내 룸메이트다. 지금 16살 꽃다운 청춘인지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듯 보이지만 친절이 몸에 밴 매너녀다. 현재 중국어를 공부 중이며 한국어에는 큰 관심이 없다.(흑흑)



## Nong Fook

8살 꼬꼬마 Fook은 나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남동생이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시크함을 보였다. 물론 지금도 학교에서는 여전히 시크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는 잠이 들때까지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귀여운 동생이다.

# 1. School Program



## 2) Ton Phai's Family

### Ah ma Ann

엄마는 Thai사람이 아닌 Akha 사람이다. 덕분에 엄마가 해준 Akha 음식을 자주 먹을 수 있다. (매끼 2그릇씩!!) 특히 엄마는 영어에 높은 교육열을 갖고 계신데(^.^), 신기한 건 Akha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이 같아서 영어를 쉽게 읽을 수 있으시다는 점이다!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있는 힘껏 엄마께 영어를 알려드리고 싶다!

### A' da Asah

아빠 또한 9년 전에 Akha에서 태국으로 오셨다. 날마다 산칸팡에 가서 오징어 등을 파신다. 아빠는 정말 Akha 부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게 Akha 이야기 혹은 노래를 많이 알려주신다.

사실 아직까지 아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아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 1. School Program



## A' nyi Yord

Yord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13살 남동생이다. Yord는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내 룸메이트이자 내 베스트 프렌드다.

Yord란 이름은 태국말로 산의 정점을 뜻한다. 이 이름처럼 내 베스트 프렌드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남은 시간 동안 지금보다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 A' nyi Lidia

8살인 Lidia도 나와 같은 학교를 다닌다. 때로는 얼굴이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보이는 미소는 8살 여느 귀여운 소녀와 같다. 내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면 Lidia도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Lidia와 더 친해지고 싶다.



# 1. School Program



## A' Pi Mideu

우리 할머니 역시 Akha 사람이다. 할머니는 13년 전에 태국으로 오셨다.

내가 처음 집에 갔을 때 가장 살갑게 반겨주신 분이다. 태국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렵지만 언어의 장벽을 뚫고 열심히 대화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



## A' nyi Kan

3살짜리 내 동생 깐은 나를 '아도'라고 부른다. '아도'는 Akha 말로 오빠를 뜻한다. Kan이 나를 아도라고 부를 때 내가 정말이 가족 구성원이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 1. School Program

## 3) Dok Khem's Family

### Mae Phon

우리가 학교에서 홈스테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오신 분이 우리 엄마였다. 이처럼 우리 엄마는 정말 부지런하시다.

또한 우리 집의 셰프이시기도 한데, 매일 정성스럽게 나와 동생을 위해 요리해주신다.

엄마는 온화한 성품과 인상과는 달리 마음이 강인하신 분이시다. 고향 Burman을 무척 그리워 하시지만 딸과 어머니께 보내드릴 돈을 벌기 위해 Thai에 온 이후로 한 번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으셨다.



# 1. School Program



## Nong Rung

큰 눈과 채리 같은 입술. Rung은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아직 7살이지만 1학년에서 1등을 하는 등 정말 똑똑한 동생이다. 하지만 7살 또래처럼 놀고, 뛰고, 만화를 보고, 수다 떠는 걸 무척 좋아한다.

처음 만났을 때는 엄마 다리 뒤에 숨기 바빴지만 1시간이 지난 후, 시작된 수다는 끝이 보이질 않았다. 그것도 태국어로! 너무 빨라서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Rung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좋아하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한국인 언니인 나를 잘 챙겨준다.(^^;;)

# 1. School Program



## 4) Ton Khun's family

### Phuu Ongah

우리 아버지는 많은 웃으시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뿐더러 마을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이장이기도 하시다.



### Mae Eh

우리 어머니는 항상 새벽 4시가 되기 전 산칸팍 시장으로 떠나신다. 항상 피곤하지 않으실까 걱정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피곤함을 티 내신적 없는 강철 체력을 소유하셨다.

# 1. School Program



## Nong Tok Teck

내 여동생은 밖에서는 나와 전혀 친하지 않은 척, 내게 무심한 척하는 새침데기다. 하지만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나를 챙겨주는 동생이다.

그리고 친구가 굉장히 많아서 매일 밤마다 우리 집은 탁아소처럼 많은 애들이 점령하고 있다.



## Nong Tick

내 남동생 Tick는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늦은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와는 몇 번 보지 못했다.

# 1. School Program



## 2. Wat Pao Sam Kha 초등학교

홈스테이를 지내면서 활동하게 된 학교는 'Wat Pao Sam Kha' 초등학교다. 전교생이 108여 명인 조그마한 학교지만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즐거움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 1. School Program



## (1) 홍콩 학생들과 함께

우리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Support! 특히 'Hong Kong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학생들과 지난 3일 간 함께 활동했다. 수업 통역을 돕기도 하고 같이 '레이프라통'을 위한 꼬라통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 학생들과 다 함께 그렸던 'Asian Peace Culture' 벽화가 힘들긴 했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다.



# 1. School Program



## (2) 수업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된 정규 수업!  
우리는 매주 10시간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 DIY(Do-It-Yourself) 그리고 영어 연극 수업을 했다.

또한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한국어 문장을 한 문장씩 가르쳐 주고 있다.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로 인사를 전할 때마다 입가에 절로 미소가 띠어지는 건 왜일까?

주 제	수 업
한국어	색깔, 숫자
한국 문화	태권도 (인사법, 막기 4가지)
D.I.Y.	신문 모자이크 (이름표, 코끼리 그림)
영어 놀이	개미와 베짱이



▲첫 주 우리 수업 계획

# 1. School Program



## (3) 고민거리

### 1) 현재 수업 진행 상황

#### **D.I.Y.**

-환경 수업이 갖는 제약이 많았다. 우선, 환경 수업을 하기에는 저학년이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준비물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학교에 따로 분리수거함이 있지 않아서 수업을 준비를 매주 YMCA에서 해가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설명이었다. 태국어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테마를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 1. School Program



## 영어 수업

-처음 계획은 영어 연극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려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영어 수준과 우리가 준비했던 영어 수업의 수준이 달랐다. 뿐만 아니라 연극을 진행하기에는 우리가 설명을 전달하는 데 언어적 한계가 있었다.

# 1. School Program



## 2) 학생들과의 관계에 따른 수업 진행의 어려움

- 학생들과 점점 친해지는 건 우리도 원하던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더 친해지면 친해질 수록 우리가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 우리가 항상 "조용히 해!" 나 "그렇게 하지마!" 등을 학생들에게 주지 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와 학생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 시키려 어느 정도의 선을 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 1. School Program



## (4) 변경 사항

### 1) 수업 변경

-D.I.Y. > 미술 수업

미술 수업을 지속하되, 환경 수업을 빼기로 했다. 환경 수업을 대신해서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350PPM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영어 놀이 수업 철회

영어 연극 수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으로 모아지면서 한국어 수업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 2) 학생들과의 관계

-수업시간과 방과 후의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 2, 레이끄라통



2013. 11월 람푼 레이끄라통 축제에서...

## 2, 라이끄라통

### 라이끄라통 축제!

태국의 2대 축제 중 하나인 라이끄라통! 축제가 있는 11월 한 달 내내 이어지는 폭죽 소리에 이 축제가 얼마나 큰 축제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만든 끄라통, 우리의 소망을 실어 날린 콤파이 등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지금부터 다 함께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고고!



## 2, 라이끄라통

### 1. 라이끄라통이란?

'라이끄라통'은 11월 대보름날에 열리는 태국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다. 전국적인 대축제이고 국제적인 대축제인지라 태국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까지도 축제날을 기다리며 축제 준비를 즐긴다.

축제 전후 및 당일엔 여기저기서 불꽃놀이가 있고 '콤화이'라는 것을 띄운다. 콤화이는 모양이 매우 다양한데 얇은 종이 풍선같은 거다. 불을 지피면 그 연기로 종이 풍선이 부풀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게 하늘을 가득 매우 아름답고 장관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콤화이에 소원을 띄우는데 만약 이 콤화이가 날아가다 다른 집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그 집은 불운이 간 거라는 의미라고 하니 소원을 날린 후라도 하늘을 조심해야..!!(실제로 현지 스텝 집에 불이 났었다는 슬픈 전설이...)

뿐만 아니라 바나나 잎과 바나나 나무 몸통으로 만든 끄라통을 강물에 띄워 각자의 염원을 빈다. 많은 사람들이 끄라통을 직접 만들며 준비를 하기도 하고 축제 기간에 상점에서 팔기도 한다.

## 2, 레이끄라통



## 2. 축제 즐기기!

### 1) 학교

전국적인 대축제를 준비하는 데에 학교가 빠질 수 없지!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축제를 준비하며 축제를 즐기기 시작했다.

우리학교에서는 매년 바나나 나무 몸통과 바나나 잎을 준비해 옹기 종이 앉아 다 함께 끄라통 혹은 똥을 만든다. 우리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끄라통과 똥을 만들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이들의 손재주는 가히 남달랐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예쁜 끄라통이 탄생하는 것이 신기할 따름!

## 2, 라이프라통



### 2) 축제 당일

#### 우리는 어디서 즐길까?!

축제를 처음 즐겨보는 어린양들을 위해 피쁘레는 우리에게 람퐁으로 함께 떠나자고 했다. 라온아띠9기 친구들과 일본에서 온 도시샤 친구 케이, 피삐약의 가족들과 풍, 그리고 노먼! 아리 선생님의 친구들까지도!

우리는 JKY고등학교의 선생님이자 피쁘레의 언니이기도 한 아리 선생님 댁에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로컬음식으로 저녁식사를 즐겼다. 축제의 퍼레이드 시간을 기다리며 상다리 부러지는 엄청난 저녁이었다!

## 2, 라이끄라통



거리엔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와있었고 곳곳에서 '핑!' 하며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 흠칫흠칫 하지만 계속 두리번거리며 신기하고 재밌는 축제현장을 걸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한 절로 들어갔는데 그 곳엔 수많은 연등, 그 보다 많은 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밤하늘 여기저기 콧화이로 수놓아지기 시작하고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 2, 레이끄라통



### 직접 해보기

정신없이 구경하던 우리도 우리의 콧화이를 사서 불을 지펴 가득 찬 보름달이 떠있는 하늘로 우리의 소원을 실어 날려보냈다.

한참을 구경하다 발걸음을 옮겨 강가로 가보니 웬걸!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서 끄라통을 띄우고 있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만든 끄라통은 깜빡하고 두고 와서 우리 것을 띄우진 못했지만 절 안에서 상인들이 파는 보다 예쁜 끄라통을 사서 친구들과 함께 끄라통을 띄워 소원을 빌었다. 모두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 2, 라이끄라통



### 퍼레이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 절 밖으로 나가보니 끝없이 긴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었다. 람퐁의 각 학교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아름다운 퍼레이드였다.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각 학교의 이름이 새겨진 화려한 판을 들고 행진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행진 차에 올라탄 교내 미녀 미남들에 우리 눈은 즐겁기 그지 없었다! 물론 어떤 학교는 여자 뺨치게 예쁜 여장남자(?)의 등장 에 라온아띠 남자 멤버는 경악을 여자 멤버는 뭘지 모르는 꿀림(?)을 느꼈다는 비화가..trrr..



### 3, 중간평가



2013. 11월 중간평가 Wat Pao Sam Kha School에서...

# 3, 중간평가

## 중간평가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을 때쯤 들려온 반가운 소식! 한국 YMCA 스텝들의 방문! 물론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식은 땀이 흐르긴 했지만 큰 힘이 됐던 시간이었다.^^



# 3, 중간평가

## 1. 일정



### 11월 29일 금요일

Evaluating team과의 첫 만남! 오랜만에 한국사람과의 대면이어서인지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나요?"라고 물어볼 만큼 한국말이 모두에게 어색했다.^^;;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활동하고 있는 학교와 홈스테이를 방문했다.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더 고마운 건 왜 일까?



### 11월 30일 토요일

두근두근. 드디어 우리가 살아온 지난 3개월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 피 페처린, 피 페, 한국 평가단 그리고 라온아띠 팀이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평가단을 배웅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뵙길!!)

# 3, 중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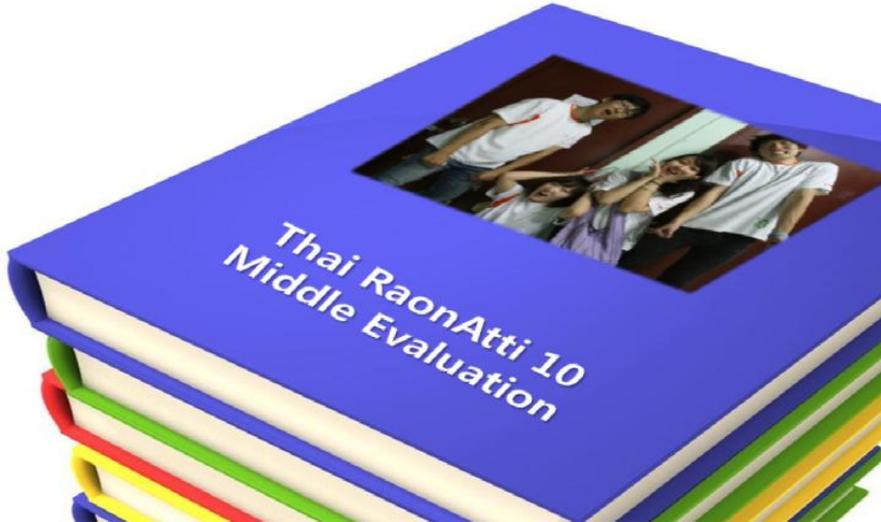


## 2.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것들...

우리의 3개월 간의 시간을 말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느낀 것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많은 것들을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YMCA를 통해 NGO 활동에 대해, End Poverty Campaign, , 홈스테이 등 여러 경험을 하면서 Coffee, Organic 등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웠다.

이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3, 중간평가

#### Love Coffee Shop

특히 Café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처음 카페에 페인트를 칠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곳이다. Café의 1부터 10까지 우리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만큼 Caf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최대한 잘 전달하고 싶었다.

행복

고민  
-Love Coffee 왜 할까?

공정무역 Cafe

Love Cafe

사람

Organic Coffee Been 이용

Love&Care

- 이익 일부 기부

## 4, Feeling



울고 웃고...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우리 3개월...

# 4, Feeling

## Ton Phai(재준) Feeling

### [솔직함]

사람들과 관계에서 항상 솔직할 수는 없는 것일까?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거짓도 필요한 것일까? 자신과 잘 맞고 좋은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 내기 싶고 나와 잘 맞지 않고 싫고 꺼려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말하기 싫고 실수 하지 않으려 하고 강하게 나가는 것이 맞을까?

요즘 태국에서 하나의 팀원으로 살면서 위의 고민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 도 답이 없고 좀더 나은 방향을 생각해 도 막상 앞에 서면 그게 되지 않는다. 아마 이 고민의 끝은 없을 듯하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지금 내 감정은 빨리 이 기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 뿐 이다. '왜 사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하는 생각까지 든다. 누군가 답을 안다면 그 답을 알려주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 기회가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분명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 이상으로 별 의 별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갈 테니 말이다. 미리 겪으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낮추고 이성적으로 생각한 행동대로 시도를 해보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 상 태는 더 이상 시도하기 싫다. 솔직히 기대치가 없다. 점점 어둠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뱀파이어 처럼 현재 내 모습은 밝은 면을 생각하지 않고 어둠의 모습만 떠올리고 있다.

솔직함, 참 좋은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인 것 같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솔직하고 싶다. 하지만 모두에게 묻고 싶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솔직해야 되냐고?' 내 의견은 '그 령지 못하다' 이다. 앞에서는 '네' 이렇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뭐야, 이게 말이되?' 이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내가 준 호의에, 이야기에 거짓으로 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힘들다. 솔직함, 어렵다. 나도 어렵고 타인을 생각하는 솔직함 또한 어렵다.

## 4, Feeling

### [기다림]

기다림, 그게 뭐더라 요즘. 그 단어를 잊어 가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 앞에서 솔직함은 없어 진 지 오래고 내면의 기다림 또한 없어져 가고 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태국오기 전 많은 라온아띠 들이 생활하면서 느꼈다고 한다.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보다 먼저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했는지 생각을 해봤다.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나와 다름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서 등등 나에게 있는 물음표를 조금이나마 마침표로 바꾸고 싶어서였다. 근데 지금 나는 점점 물음표만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 9월부터 11월 그리고 어느덧 12월이 다됐다. 물음표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걸까, 아님 다른 사람이 말하고 싶어 미쳐 버리는 걸까? 내 생각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말을 꺼내는 것 같다. 이 말을 기다린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기다린 것이다.

기다림 그러하다. 어떤 의미의 기다림이 던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 투성이다. 내가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어쩌면 기다림 또한 솔직함과 관련이 많은 것 같다. 나에게 있어서 솔직해지면 기다릴 필요 없고, 기다리면 기다릴 수록 솔직한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다. 무엇 보다 이 상황에 솔직하고 기다림을 가졌으면 좋겠다.

# 4, Feeling

## Ton Khun(준범) Feeling

### [제목]

11월, 어느덧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나, 중간 고사만큼이나 두근대는 시험을 치렀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나는 이 곳에서 내 진심을 다해 노력해보질 않아서 당당하게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 그저 사람에 치여 눈치보고 힘들어하였던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이지 않았나 싶다. 다만, 지금은 그 가장 큰 일부분이 사라져 공허함을 오히려 느끼는 중이다.

다들 내게 말한다. '5개월, 그 짧고도 소중한 시간, 아깝지 않게 보내야 되!' 그 래, 아깝다. 지금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도 아깝고, 그만큼 느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충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뜨거운 시간 한 번 보내 볼란다!"

# 4, Feeling

## Dok Khem(별기) Feeling

### [두려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 많아진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제자리에서 돌고 돌아 결국 두려움에 이르기도 한다. 11월은 유난히 두려움이 많아졌던 달이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해나가면서 나 자신의 한계를 느꼈던 적도 많다. 내 콤플렉스가 내가 지향하는 이상과 부딪혔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잠깐만 하고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는 없는 환경이 못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시간은 갔고 순간 순간의 힘든 생각 역시도 지나갔다. 물론 이렇게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하는 상태로만 앞으로 진행시킨 것들의 결과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게 중요했던 건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뭔가를 다시 잘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직 온전히 실천에까지는 옮기지 못하고는 있다. 그러니까 아직 완벽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남은 두 달을 조금이라도 더 극복해보고 싶다.

# 4, Feeling

## 문화 그리고 정서의 차이 - 두 번의 장례식과 두 번의 결혼식

Ton Yong(수진) Feeling

### [장례식]

태국에 오기 전 국내훈련 기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때 갔던 장례식의 장면들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잊어지지 않는다. 오열하고 있던 우리 가족들, 우울했던 장례식, 특유의 향까지. 이런 기억 때문인지 장례식장은 내게 우울하고 슬픈 장소라는 인식이 강했다. 어쩌면 이 같은 장례식장 분위기는 한국 고유의 정서인 '한'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이라는 사전적 의미까지는 아니어도 마치 한을 풀어내듯 애절하고 구슬픈 울음소리임은 맞는 듯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마음에서 나온 한이 아니었을까.

그래서일까. 태국에 와서 경험했던 두 번의 장례식은 내게 색다른 충격을 줬다. 한 번은 YMCA 스텝 어머니의 장례식 또 한 번은 홈스테이를 하면서 겪은 장례식이었다. 두 장례식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마을사람들까지 다 함께 장례식을 직접 집 혹은 절에서 준비했다는 점, 참석했던 사람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미소를 짓고 있어 장례식이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는 점. 만약 홈스테이 엄마가 "지금 장례식에 같이 가야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난 그저 마을에서 열리는 절 행사 정도로 생각했을 거다. 2번의 장례식을 본 나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한국 장례식 분위기와 다를까. 내 질문에 엄마는 이렇게 답했다. "영혼의 축복을 위해 단 하루만 울고 나머지는 울지 않고 웃으며 준비한다"고. 태국에 와서 겪었던 태국사람들은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다. 힘든 일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었고, 어떤 일이든 심각하게 자신을 몰아가지 않았다. 그 모습이 장례식에도 나타난 것 같다.

# 4, Feeling

## Ton Yong(수진) Feeling

### [결혼식]

한국에서 겪었던 결혼식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는가. 화려한 예식장, 뷔페, 혼수 그리고 비용...? 내가 생각한 한국의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다. 반면 내가 겪은 태국에서의 두 번의 결혼식은 조금 아니, 많이 달랐다. 결혼식 준비부터 그 이후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고, 결혼식장은 예식장이 아닌 집 앞마당 그리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가라오케까지.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한국 결혼식과 태국 결혼식이 많이 다른가요?"였는데, 내 짧은 언어 실력으로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다. "조금 달라요. 결혼식은 큰 곳을 빌려서 하고 결혼식 준비는 신랑 신부 등 최 측근만 해요. 그리고 가라오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답하고 나니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조금 슬퍼졌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무대를 가리키며 "가서 노래하고 춤춰줘!"라는 말을 10번 이상 듣고는 '모든 건 장단점이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_^

내가 오기 전 겪었던 우리나라 장례식과 결혼식 그리고 태국에서 겪었던 두 번의 장례식과 두 번의 결혼식. 문화, 고유의 정서 때문인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어떤 게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아닌 우는 것도 웃는 것도 또한 돈 쓰는 것도 다 같이 준비하는 것도 모두 사람을 위함임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